

## "다시 한번 새롭게"

설날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명절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양력 새해에 가졌던 결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을 맞아 말씀을 살피며, 새해 우리의 다짐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간헐적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서신을 보내는데, 그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서신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대와 소망이 들어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옛사람"은 지난날의 생활방식에 따라 사는 삶을 뜻합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아닌 것을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유혹의 욕심"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의 유혹은 그 힘이 엄청나지요. 정말 편하고 또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바울은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지요. "새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활방식에 따라 사는 삶을 뜻합니다. 곧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중심 가치관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려는 것인데,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런 삶은 쉽지 않습니다. 때론 고되고 아주 힘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새사람"의 삶의 방식을, 새로운 마음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새사람"을 입은 삶을 지켜갈 수 있고, 그 삶의 결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 가지 믿음의 결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하나님과 성도와 이웃과 열방에게 더 가까이 가겠다 다짐하셨는지요. 지난 한 달여간 이 결심과 다짐을 잘 지켜내셨습니까? 혹 그 결단과 다짐은 약해지고, 이전과 같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각자와 가정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될 것을 다짐하며, "새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썩어져 가는"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자리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족 각자와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빕니다. 다시 한번 "새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과 성도와 이웃과 열방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 각자와 우리 가정을 이끄사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각자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만 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새사람"의 삶을 결단하는 설날 되시길 바랍니다.

## 가정에서의 하신조 실천

가족 각자가 새해에 다짐한 믿음의 결심을 다시 고백하며, 고백이 끝날 때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사 새사람을 입게 하소서."라고 응답해 봅시다.

2024

## 설날가정예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 2024 설날 가정예배

오늘은 2024년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새해입니다. 이날을 맞아 우리에게 새로움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리며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다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 묵상기도 ..... 시편 100:4~5 ..... 다 같이

- <sup>4</sup>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이다
- <sup>5</sup> 여호와와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이

전능하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 찬 송 .....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 다 같이

-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 땅들이 바다야 많은 섬들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 기도 ..... 말은이

## 성경봉독 ..... 에베소서 4:22~24 ..... 말은이

- <sup>22</sup>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 <sup>23</sup>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 <sup>24</sup>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 설 교 ..... 다시 한 번 새롭게 ..... 말은이

## 합심기도 .....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나라를 위해 ..... 다 같이

## 찬 송 .....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 다 같이

-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후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 주기도문 .....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